



22122328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14 May 2012 (afternoon)
Lundi 14 mai 2012 (après-midi)
Lunes 14 de mayo de 2012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

● **응모 분야**

창작 부문

- 초등 저학년 대상, 고학년 대상 미발표 창작 원고. 단편동화집, 장편동화, 동시집.
- 심사는 저학년 대상 원고와 고학년 대상 원고를 분리해 진행하고, 수상작도 각각 뽑을 수 있음.
- 응모시 ‘저학년 대상 원고’인지 ‘고학년 대상 원고’인지 밝혀주세요.

기획 부문

- 과학·환경·경제·역사·사회·음악·미술·건강·전통문화 등 각 분야를 창의적으로 다룬 미발표 논픽션 원고.
- 원고 앞에 A4 종이 1장 분량의 기획안을 첨부해주세요.

● **분량**

창작 부문

- 저학년 대상은 100~200매(200자 원고지).
- 고학년 대상은 300~500매(200자 원고지).
- 동시는 50편 안팎.

기획 부문

- 그림·사진 등을 포함해 단행본 1권 분량으로 알맞게.
(여러 권으로 된 원고는 1권 이상의 완성 원고 제출.)

● **응모 자격**

기성, 신인, 개인, 단체 등 제한 없음.

● **시상 내역**

- 부문별 대상작: 상패 및 고료 1000만원,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참관과 유럽 문화기행 혜택.
- 대상작이 없을 경우 우수작을 뽑을 수 있음. (상패와 고료 500만원.)

● **기타 사항**

마감

2010년 9월 30일

접수

우편으로만 받으며, 마감일 발송 분까지 유효함.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3-11 (주)창비 어린이청소년출판부.

발표

2012년 11월 15일 본사 홈페이지(www.changbi.com) 및 계간 『창비어린이』 2012년 겨울호.
(입상자에게는 따로 알림.)

시상식

2013년 2월중.

창비 2010

본문 B



휴대전화에 전자파 경고문을 넣자



- ①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12일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14살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광고도 금지한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취약한 연령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동통신 업체가 휴대전화를 팔 때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6월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SAR를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구입 전에는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 구입한 뒤에야 SAR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②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인터폰 연구’ 결과는 이같은 [-X-]을 잠재워 줄 것으로 [-14-]를 모았다. 이 연구는 국제암연구소가 2000년부터 휴대전화 전자파와 암의 연관성을 [-15-]하기 위해 [-16-]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는 [-17-]한 결론으로 혼란만을 가져왔다. 결국 국제암연구소는 “오랜 기간 많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 ③ 문제는,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뒤라는 점이다. 흡연은 1910년대에야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12년 미국의 애들러가 임상 경험을 통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는 일종의 연구가설을 발표한 것이 처음이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자체 연구를 통해 1954년 “담배가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일부 연구자 역시 흡연과 폐암이 항상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개성 등 다른 요인이 암 유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④ 논란을 거듭하던 흡연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1964년 1월11일 미국 공중위생국이 ‘흡연과 건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흡연은 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발표하면서다. 이후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숨긴 것은 물론, 니코틴 중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화합물을 첨가제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1994년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1974년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여 1976년에 처음으로 담뱃갑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었다.
- ⑤ 연세대 의대 김덕원 교수(의학공학)는 “흡연에 대해 20세기 초부터 유해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뒤에야 규제가 시작됐다”며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자파 유해성을 증명하는 데는 담배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흡연의 경우 흡연 기간, 하루 흡연량 등 통계가 뚜렷해 통계적으로 암 발생률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며 “전자파는 그 세기와 노출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 확실한 결론을 내는 데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21> 2010.10.15

본문 C

엄마의 말뚝

- ① 이사가고 나서 나의 외토리 신세는 좀더 심해졌다. 땀쟁이 딸하고도 자연히 멀어졌고 나 혼자 매동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의식적인 따돌림을 받았다. 엄마는 되레 그걸 바란 것처럼 좋아하는 눈치였다. 문 밖에 살면서 일편단심 문안에 연연한 엄마는 내가 그 동네 아이들과는 격이 다른 문안애가 되길 바랐다. 딸에게 가장 나쁜 거라고 가르친 거짓말까지 시키게 해가며, 또 친척의 주소를 빌리는 번거로움과 치사함을 참아가면서 심지어는 문둥이가 득실댄다는 등성을 매일 지나다녀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까지 굳이 문안 학교에 보내지 못해 한 엄마의 뜻은 그런 데 있었으니까.
- ② 엄마는 자기가 [-X-] 도달하지 못한 이상향과 [-26-] 처한 현실과의 갈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27-] 자식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28-] 자식이 겪는 갈등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었다. 나는 동네에서도 친구가 없었지만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학교 친구들은 모두 그 근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 끼리끼리였다. 그 끼리끼리가 저희들끼리 싸우고 바뀌고 편먹고 할 뿐이지, 처음부터 어떤 끼리끼리에도 안 속한 이질적인 아이에 대해선 배타적이고 냉혹했다. 나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디가 어떻게 남과 달라서 여기저기서 따돌림을 받나를 이상하게도 슬프게도 생각했다. 한 동네 사는 애들하곤 격이 다르게 만들려고 엄마가 [-29-] 조성한 나의 우월감이 등성이 하나만 넘어가면 열등감이 된다는 걸 엄마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다같이 [-30-] 이라는 것으로 서로 [-31-] 이었다.
- ③ 일학년 담임 선생님은 내가 처음 만난 엄마가 말한 신여성의 구색을 한 몸에 갖춘 분이였다. 머리는 반가리마를 타서 뒤에서 빗어 올리고, 옷은 흰 저고리에 검정통치마를 입고, 구두는 까만 뽕죽 구두를 신었다. 출퇴근 때는 까만 핸드백을 들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모르는 것 없이 알고 있다는 것까지도 믿어도 될 것 같았다. 우리들이 물어 보는 어려운 질문도 한 번도 못 대답한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뭐든지 알고 있을 뿐더러 누구든지 다 사랑했다. 약간 주근깨가 있는 화장 안한 수수한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선생님 둘레엔 항상 많은 아이들이 따랐다. 운동장에서 여러 아이들에 둘러싸여 걸음도 제대로 못 옮기는 선생님을 볼 때마다 나는 [-32-] 같다고 생각했다.
- ④ 나는 멀찌감치서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손톱을 질경질경 씹었다. 나는 수업시간에도 등교나 하교 시간에도 손톱을 씹었기 때문에 엄마가 따로 깎아줄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선생님 손을 잡아보고 싶어했다. 선생님 손은 누구든지 잡고 싶어하고 잡으면 놓지 않는데, 선생님 손은 둘 뿐이니까, 아이들을 어디까지나 고루 사랑하는 선생님은 번갈아 잡아주려고 애썼다. 자아 아직도 선생님 손 못 잡아 본 사람 손들어요. 그럼 나요나요 하고 아이들이 손을 들면 선생님은 그 중에서 [-33-] 정말 못 잡아 본 애 손만 가려내어 꼭 쥐어주기도 하고 쓱쓱 어루만져 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손톱을 씹으면 씹었지 손을 들지 않았다.
- ⑤ 나는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고루 사랑할 것 같은 선생님 특유의 상냥한 미소가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단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 문학사상 1980

본문 D

2010년 김치는 부자들의 음식?



절인 채소를 먹는 문화는 세계를 통틀어 보편적이지만, 한국의 김치 문화는 특이하다. 중국에는 배추·오이를 식초에 절인 ‘파오차이’가 있다. 일본에도 다쿠양을 비롯한 신맛의 ‘즈게모노’가 있다. 서양 사람들은 식초에 채소를 담가 만든 ‘피클’을 먹는다. 신맛 채소 절임 음식들은 기름진 음식들은 먹을 때, 청량감을 더하는 구실을 한다. 한국의 절인 채소 음식은 이들과 다르다. 무·오이가 아닌 배추를 주로 쓴다. 신맛이 아니라 매운맛을 낸다. 밥과 함께 언제나 주식처럼 먹는다. 이 세 가지 특성이 한국 배추김치가 부자들의 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20세기 초반에 그러했듯, 21세기 초반 들어 다시 배추가 귀해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발표한 통계를 보면, 국내 배추 재배 면적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반으로 줄었다. 농업 전체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가을 배추 품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기상이변이다. 다만 몇몇 학자는 ‘4대강 공사’를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지난 4월, ‘4대강 사업에 따른 농경지 축소와 식량 문제’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배추를 비롯한 전체 채소 재배 면적의 12.3%가 4대강 공사로 경작을 중단하게 됐다. 이는 사라지는 경작지만 계산한 결과다. 장 교수는 4대강 공사로 인해 강물이 고이고, 안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면, 그만큼 채소의 품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채소의 판로가 막히면, 농사를 그만두는 농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06년 전국 김치 수요량은 150만t 안팎이다. 이 가운데 배추김치는 100만t 정도다. 그런데 한국 배추 생산량은 김치 배추 수요량을 겨우 맞추고 있다. 경작지가 줄어도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산 배추 또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장상환 교수는 “배추 등 채소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수입에 기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J 홍보팀 관계자도 “수입한 배추와 김치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 배추김치 자체가 ‘조선 배추’를 육종한 결과였다. 중국·일본의 배추는 수분 함유량 등이 달라 김치를 담가도 같은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겨레 21> 2010.10.15